

전남도, 화순에 펩타이드 첨단신약 플랫폼 구축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선정 백신특구에 총사업비 440억원 투입
조선대 중심 5개 공동연구팀 등 참여
바이오분야 특화단지 지정 탄력 기대

화순 백신특구에 차세대 펩타이드 첨단 신약 플랫폼이 구축된다.

전남도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중 하나다. 총사업비는 440억원으로, 국비는 260억원이 투입된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2~50개 정도가 연결된 물질로 부작용이 낮고, 상대적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신약 성공률이 2배 높다. 대표 의약품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슐린 제제가 있으며, 2022년 기준 펩타이드 의약품 글로벌 시장 규모는 60조원으로, 2030년에는 100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백신과 면역치료제를 이어가는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차세대 특화 분야로 펩타이드를 선정했으며, 이번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은 △펩타이드 타깃질환 선도·후보물질 발굴 △펩타이드 제형화 기술 개발 △펩타이드 대량 합성기술 개발 △펩타이드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이다. 2028년까지 화순 생물의학 제2산단

에 연구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조선대학교를 중심으로 5개 공동연구팀(성균관대학교·서울대학교·인하대학교·(주)디큐어·(주)비드테크)과 5개 위탁연구팀(광주과학기술원·연세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한국화학연구원·(주)렉스팜텍)이 참여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을지대병원은 임상 자문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지정한 차세대 첨단신약인 '펩타이드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 선정으로, 펩타

이드 의약품 스타트업과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큰 발판이 마련됐다"며 "펩타이드 국가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첨단신약 연구 개발을 통해 전남이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 선정이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전남의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삼성전자 '2024 파리 올림픽 체험관' 오픈

이벤트·갤럭시 AI 경험 제공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파트너(Worldwide Partner) 삼성전자가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오픈한다.

삼성전자는 현지시간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125번가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마련하고 개관식을 진행했다.

'삼성 올림픽 체험관'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과의 디자인 협업을 통해 완성됐다.

17세기 프랑스의 문화, 예술, 지식이 교류되던 공간인 '살롱(Salon)'에서 영감을 받은 체험관은 삼성전자의 개방성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소통의 공간으로 빛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는 장 누벨의 디자인 철학이 접목됐다.

'삼성 올림픽 체험관'은 3일 정식 오픈

을 시작으로 10월31일까지 운영된다.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을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브레이킹·스케이팅·보딩 등 올림픽 신규 종목으로 구성된 다양한 게임과 스포츠 영상 촬영 등을 통해 '갤럭시 AI'의 혁신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관에는 역대 올림픽 에디션 휴대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올림픽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갤럭시의 혁신적인 파트너십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샹젤리제 거리 외에도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파크, 선수촌, 미디어센터 등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추가로 오픈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경기장에는 '삼성 갤럭시 차징 스테이션(Charging Stations)'을 운영해 갤럭시의 혁신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상의, 중소기업 공공조달 실무교육 성료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공공조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시장은 2022년 196조원 규모, 국내총생산의 9.8%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2018년 141조원 대비 39% 증가했으며, 조달업체수는 2018년 40만915개사에서 2023년 57만2118개사로 42.7% 증가했으나 지역 중소기업은 정보부족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광주상의는 전자입찰 및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활용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경기침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공공 및 민간 입찰에 대한 낙찰률과 공공조달 납품기회를 높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이날 교육은 광주지역 기업체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전자입찰 실무교육, 2부 다수공급자계약 실무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 '픽업엔충전 서비스' 광주서도 운영

현대차가 '픽업엔충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서울 지역 한정 운영으로 시범 운영해 온 픽업엔충전 서비스를 이달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6개 광역시(부산·대구·울산·광주·인천·대전)에서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마이현대(myHyundai)' 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기사가 승용 전기를 가져가 충전(최대 80%)과 자동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 후 원하는 장소에 돌려놓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의 총 5개 타임으로 운영된다. 고객은 희망 날짜·시간·차량 위치, 디지털 키를 활용한 비대면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이 픽업·타송비는 2만원, 세차비는 5000원이다. 여기에 충전비용이 1kWh당 347원으로 별도 실비 정산된다.

현대차는 앞으로 각 광역시에 3개월씩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수요를 파악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지역 향토기업 베비에르, 동행축제 참가

8일까지 10% 할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5월 동행축제에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베비에르가 참여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1991년 광주 서구의 작은 동네 빵집으로 출발한 베비에르는 끊임없는 혁신과 제품개발을 통해 현재 11개의 지점과 해협공장을 보유한 지역 대표 제과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220여명의 직원이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마우천 대표는 지

난해에 제과분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베비에르는 유기농 밀가루와 유산균, 발효종을 사용한 친환경 빵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대형 프랜차이즈 공세에 밀려 동네 빵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때에도 지점을 확장하는 등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적인 향토 맛집으로 유명하다. 또 베비에르는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당일 소진되지 않은 빵은 매일 지역 복지센터에 후원하는 등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30년간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 성

장해 온 베비에르는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동행축제에 참여해 이날부터 8일까지 8일간 11개 전 지점에서 모든 제품에 대해 10%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동행축제는 올해로 5년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라며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동행축제 기간에 향토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미래도시 주제 '제8회 현대 키즈 모터쇼' 개최

내달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경기 고양시에 있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제8회 현대 키즈 모터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 키즈 모터쇼는 어린이의 순수하고 다채로운 상상력을 응원하는 그림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을 선정해 전시하는 성장 세대 캠페인이다.

현대차는 키즈 모터쇼를 통해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8회 키즈 모터쇼 주제는 친환경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전환이라는 현대차의 미래 기술 방향성에 맞게 자동차와 모빌리티에서 '미래도시'로 확장했다.

현대차는 '상상 속 미래도시를 그려주세요'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제8회 현대 키즈 모터쇼 공모전을 진행했고 많은 어린이가 참가해 유치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으로 구성된 3개 부문에서 총 1만4097개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 중 150점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으며 확장된 공모 주제에 맞게 도시 공학, 로봇 공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 심사를 거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3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상 3점



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경기 고양시에 있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제8회 현대 키즈 모터쇼'를 개최한다.

현대자동차 제공

이 포함된 총 6점의 최우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현대 키즈 모터쇼에 전시되는 최우수 수상작 6점은 그림으로 전시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입체적인 전시물로 구현돼 현대 키즈 모터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현대 키즈 모터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을 준비해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공간도 마

련한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3~5일 진행되는 '키즈 그라운드' 행사는 인플루언서 도티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키즈 워크숍을 운영한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모빌리티 가든 전시, 키즈 쿨링 클래스를 진행하고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위치한 레스토랑 '키친 바이 해비치'에서는 특별 메뉴도 함께 운영해 풍부한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